

‘신인’ KIA 이호민 “긴 이닝 책임지는 선발투수 될 것”



“1군 데뷔전을 무실점으로 치렀습니다. 앞으로는 더 긴 이닝을 이끌어가는 투수가 되겠습니다.” KIA타이거즈 신인 투수 이호민이 당찬 포부와 함께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이호민은 지난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kt 위즈와의 주중 1차전 경기에서 팀이 10-3으로 앞선 9회초 마지막 투수로 등판했다. 해남북일초(해남군리틀야구단)-이광중-전주고를 거쳐 2025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5순위로 KIA에 입단한 그는 지난 15일 처음 1군에 등록됐고, 이날 1군 데뷔전을 치렀다.

이호민은 1이닝 동안 12개의 공을 던지면서 직구 8개, 커브 1개, 슬라이더 1개, 체인지업 2개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했다. 최고구속은 142km. 평균구속은 140km였다. 구속은 느린 편이지만, 자신감 있는 송부로 상대 타자들을 제압했다. 결과는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 첫 등판이라 긴장이 됐을 법도 하지만 그의 투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날 그의 맞대결 상대는 kt의 중심타선이었다. 그는 선두타자 안현민에게는 우중간 안타를 맞았지만, 곧바로 이정훈을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이어 로하스에게는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다. 후속타자 허경민까지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

구를 던졌는데 크게 소리 질러 주셨다. 못 던져도 팬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더 잘 던지자고 마음을 먹고 집중했다”고 말했다. kt 중심 타선을 상대한 것에 대해서는 “8회말 공격 때 제가 올라갈 거라고 들어서 곧바로 준비했다”며 “상대 타선은 보지 않고 올라왔다. 그냥 연습한 대로 가운데를 보고 씩씩하게 던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전했다. 데뷔전 자신의 구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9점, 구중 완성도는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자평했다.

이호민은 “구위에서 1점을 뺀 건 조금 힘이 들어가서다. 변화구는 다 던졌는데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KIA는 지난 11이 2025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김태형 또한 1군에 올랐다. 하지만 입단 동기인 김태형은 아직 1군 무대를 소화하지 못했다.

이에 이호민은 “(김)태형이 다음에 기회가 온다고 하면 잘 던질 것 같다. 떨지 않고 더 잘할 거라고 본다”면서 “태형이에게는 별것 없으니까 자신 있게 던지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경기에서 볼펜으로 경기를 소화했지만, 그의 최종목표는 선발투수다. 이호민은 “1차 목표였던 1군 데뷔전 무실점을 이뤄냈다. 앞으로 더 발전해서 긴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는 선발투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장애인·비장애인 서로 화합…뜻깊은 자리”

‘제4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 성료

‘제4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 대회가 지난 17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영수 광산구의회장,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시의원, 광산구의원,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임원, 장애인 시설 및 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내외빈을 포함해 21개 장애인 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등 570여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광산구 내 장애인 종사자와 이용자가 스포츠활동을 통해 함께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매년 참여자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됐다. 또 특색있는 입장식 퍼포먼스, 마술공연, 그리고 네일아트 등 부대행사 등이 눈길을 끌었다.

김태현 마술사의 마술공연으로 시작된 대회는 4

개 팀(상생·혁신·소통·화합)으로 구성해 파도타기, 공굴리기 등 팀 대항전과 홀라후프 릴레이, 인간컬링, 기관 대항전, 휠체어 경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대회 결과 종합 1위는 하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2위는 금육보호작업장, 3위는 해화주간보호센터가 차지했다. 입장상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하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나무숲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나눔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수상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화합하고 즐기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돼 대단히 기쁘며, 올해 최대 규모로 개최된 만큼 크나큰 체육관이 참가자분들의 웃음과 박수로 가득 채워지고 체육대회 열기가 매우 뜨겁게 느껴졌다”며 “앞으로 장애인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4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 대회가 지난 17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손흥민 거취, ‘토트넘 친선 방한’ 이후 결정될 듯

이적설에 휩싸인 ‘캡틴’ 손흥민(32)의 거취가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의 친선전 방한 이후에 결정될 거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는 “토트넘의 방한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을 받는 손흥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1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BBC는 “손흥민이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지만, 떠난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구단은 투어 주체 측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손흥민이 투어에서 빠지는 상황은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트넘은 올여름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에 한다. 7월 31일 홍콩에서 아스널과 경기를 치르고 한

국에서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벌인다. 8월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뉴캐슬을 상대한다.

손흥민의 거취와 관련해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토마스 프랑크 신임 감독의 다음 시즌 구상이다.

토트넘은 지난 2월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임대료 대려온 마티스 텔을 완전 이적으로 품었다.

여기에 프랑크 감독이 브렌트퍼드에서 함께한 브라이언 음보코 영입도 추진 중인 거로 알려졌다. 둘 다 손흥민과 일정 부분 포지션이 겹치는 측면 자원이라는 점에서 손흥민이 프랑크 감독의 구상에서 빠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프랑크 감독의 고민이 깊어진다면, 손흥민의 거취는 이적 마감 기한인 9월 1일이 임박해 결정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전문성 갖춘 체육행정 실현…도민 건강 증진 이끌겠다”

전남도체육회가 민선 2기 후반기 각종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8일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민선 2기 후반기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171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도체육회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7개다. 이번 수여식에서 도체육회는 4년 임기의 인사위원회와 2026년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임기의 기금심의위원회를 제외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총 15개 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15개 위원회는 스포츠공정, 전남종합체육대회, 경기력향상, 스포츠교육, 여성체육, 생활체육, 성평등, 평가, 스포츠과학운영, 지역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문화교류, 스포츠클럽육성, 관리단체운영, 예산심의(기부금심의) 위원회다.

위원 구성은 전반기 위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소수 위원에 대해서만 적성에 걸맞은 위원회에 재배정했다.

특히 군 단위 체육회 소속의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증대하고자, 17개 군체육회에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보강한 게 큰 특징이다.

이날 수여식은 각 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고 후반기 추가 위촉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에게 공식적인 위촉을 알리고, 체육회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마련됐다.



전남도체육회는 18일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민선 2기 후반기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171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남도체육회, 후반기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171명…정책 발굴·복지 집중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은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돼, 앞으로 전남 체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여식은 식순 소개를 시작으로 인사말, 위촉장 수여, 2025년도 전남체육 동향 보고, 전남체육 진흥 건의(의견수렴) 및 응답, 단체사진 촬영,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장 수여는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위원에게 직접 수여하며 의미를 높였다.

이어 전남 체육 진흥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건의와 제언을 청취하고, 답변을 나누는 등 실질적

인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책 발굴,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인 복지 강화 등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체육회는 이를 적극 검토해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앞으로도 각 위원회의 전문성과 제언을 체육행정에 폭넓게 반영해 전남 체육의 혁신과 도민 건강 증진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며 “위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열린 체육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시체육회, 진천선수촌 방문…광주 소속 국가대표 선수 격려

양궁 안산·핸드볼 서아루 등 8명

광주시체육회가 태극마크를 달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광주 소속(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을 찾아 경기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했다.

시체육회는 최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김택수 선수촌장 등 시체육회 임원 및 선수촌 관계자들이 선수들의 훈련 상황과 국제대회 출전 계획 등을 점검하며 광주 소속(출신)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체육회는 전갑수 시체육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이사, 종목단체 회장 및 체육지도자 등으로 방문단을 꾸려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찾았다.

현재 국가대표로 선발된 광주 소속 지도자 및 선수는 총 34명(지도자 4명·선수 30명)이다. 이날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최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광주 소속(출신) 선수들을 격려했다.

격려한 광주 소속 선수는 양궁 안산(광주은행), 이승윤(남구청), 김수린(광주시청), 산악 최종빈(더월), 핸드볼 서아루(광주도시공사), 수영 다이빙 정다연(광주시체육회), 체조 송채연(광주체육중)과 광주 출신인 체조 문건영(충남체육회·광주

체고 졸업) 등 8명이다.

방문단은 선수 격려를 마치고 양궁, 핸드볼, 탁구, 육상, 빙상 등 종목별 훈련시설을 돌아보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하중 기자 hajong2@